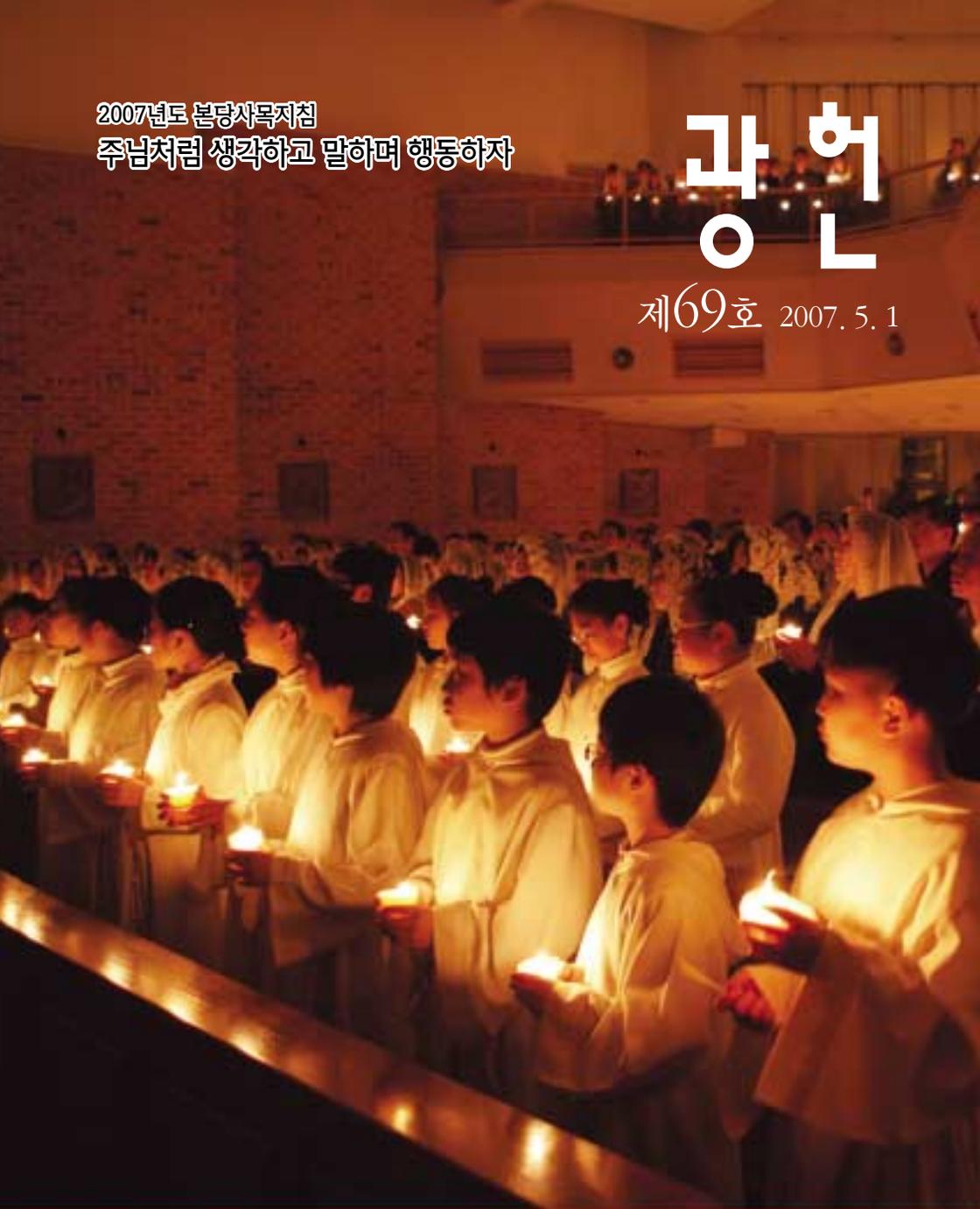


2007년도 본당사목지침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자

과 원

제69호 2007. 5. 1



천주교등촌1동성당
과 원

www.등촌1동성당.kr

4월의 꽃꽂이(예수 부활 대축일)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20,1-9)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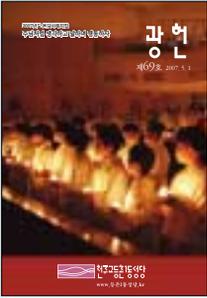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노란 빛의 장미와 금어초로 부활을.

흰빛의 설유화와 조팝나무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글 · 사진 : 현화회



표지이야기
희망이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광 헌 제69호
2007년 5월 1일

발행: 정광웅(요셉)신부
편집: 김기인(마르띠노)
보좌신부: 조명준(로마노)신부
수녀: 송루시아 · 강로마나 · 김요안나
홍보분과: 이동호(로베르토) · 홍은희(루시아)
편집실: 안건모(안셀모) · 권혁순(글라라)
박상철(아드리아노) · 강서영(미카엘)
정옥희(데레사) · 이민현(첼리나)
최지혜(로사리아) · 민애경(세실리아)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36-48
☎ 3662-8625-6
천주교대한교구
신앙인생연구소

- 2 [제대꽃의 향기]
4월의 꽃꽂이(예수 부활 대축일) 글·사진: 현화희
- 4 [교리마당]
미사에 대하여 정광웅(요셉) 주임신부
- 6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 만들기(4) 전병렬(석문가톨릭) 
- 7 [묻고 답하기]
부활초의 의미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조명준(로마노) 신부
- [칭찬합시다]
김창현(바오로), 김기훈(비오) 어린이 추천인: 김맹순(모니카)
- 8 [광현사랑방]
5월은 성모성월의 달 꾸리아 부단장 이인자(루시아) 
- 9 [광현사랑방]
부활시기를 지나며... 김태창(사도 요한) 
- 10 [포토뉴스]
주님 수난 성지주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부활성야
- 12 [단체소개]
미사해설단 단원 김은주(크레센시아)
- 14 [구역탐방]
여성 1구역 구역장 박애순(요안나)
- 15 [자유기고]
내 삶의 이모작을 심어본 '초록피정' 구자영(헬레나) 
- 16 [광현책방]
붉은 가슴 울새
- 17 [호롱불] 

미사에 대하여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한 전구 완전한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임신부 정광웅



1.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층 빌딩의 숲 아래, 많은 차들이 질주하는 아스팔트 위에, 고독과 슬픔과 공포에 싸인 어린 소녀가 안전과 보호를 찾으려는 듯이 자기 가슴에 공을 꼭 안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상황 속에서 동질성과 공동체성을 위한 생활을 과연 맞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미사에서 찾아야 한다. 미사를 통하여 우리는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힘쓰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크리스찬 공동체가 얼마나 근본적이며 포괄적인가를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미사 중심 부분에 있는 ‘전구(轉求)’이다.

성찬기도 제2양식을 보자. ‘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와 저

희 주교()와 모든 성직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미사를 봉헌하는 장소와 때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포함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물을 봉헌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인 하느님의 백성이 이룬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 안에서 성장되고 완성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그래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이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한다.

특히 ‘일치의 직무’를 수행하는 주교와의 일치,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봉사하는 모든 이와 일치에서, 하느님 사랑으로 완성된 모습이 드러

나고 또 드러내야 한다.



교회는 세계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은 주교단과 이 주교단의 일치로 대표되는 교황과의 일치에서도 드러난다.

2. 동시에 교회는 온 세상을 초월한다. 그 이유는 이 '일치'가 죽음을 초월한 일치이기 때문이다. 이 일치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의 일치이다. 이 모임은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모든 사람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저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제물이 봉헌된다.

미사 때마다, 죽은 이들을 위해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기도한다.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이 때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사랑의 불멸성(고린전 13,8)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상기하는 것이다.

3. 다음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연적인 귀결이다.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생명, 즉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의 혼

인잔치'로 (마태22,1-14, 루가14,15-20) 비유하셨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했던 마리아와 사도들과 성인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4. 미사성제는 이미 '약속된 상속'을 받은 이들과의 만남이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또 여기 모인 형제들과 일치함으로써, '세상 태초부터 주님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생활한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좋은 관계 만들기 (4)

전병렬(석문가톨릭)



자신의 욕구를 진솔하게 말할 때 자발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좋으면 힘을 얻게 되고 관계가 나쁘면 위축된 삶을 살아간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진솔하게 표현해보자

대전 연수원에 갔을 때의 일이다. 집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든다면 무슨 말을 하십니까? 라는 강사의 질문에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야! 밖으로 나가” 등 많은 대답이 나왔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한 교육생이 “아빠는 지금 고요함 속에 있고 싶다.” 하고 말했다. 일순간 적막이 흘렀고 숙연하기 까지 했다. 만일 우리가 늘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해 준다면 사람들은 상대의 욕구 충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여 도움을 줄 것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 중 하나는, 상대의 욕구를 좌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간들은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위의 두 욕구사이에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우선은 명령하지 않고 내 바람을 말하는 것

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 욕구를 수용해 주었으니 자신을 대견하게 여겨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나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기꺼이 행동을 바꿔주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성장되는 것이다.

나와 당신 두 사람 모두가 승리하여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말해보자.

➤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

“엄마는 지금 우리 딸을 꼭 껴안아 보고 싶구나!”

➤ TV앞에서 떠들며 놀고 있는 아이에게 ◀

“아빠는 지금 방해받지 않고 뉴스를 보고 싶어!”

➤ 저녁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는 남편에게 ◀

“조용하게 쉬고 싶어요! 여보!”

➤ 지쳐있는 몸을 방해받지 않고 쉬고 싶을 때 ◀

“여보~ 지금부터 2시간은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 2007년도 본당의 사목지침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자’입니다.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그 주제에 맞춘 글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부활초의 의미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켜두는지요?

조명준 (로마노) 신부

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부활 성야의 '제1부 빛의 예식 때 특별한 예식과 함께 축성된 초로서,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초는 보통 밀랍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부활 성야의 전례가 시작될 당시 벌은 동정성을 지닌 피조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부들은 벌(蜂)을 그리스도의 정배인 교회와 동정 마리아에 비유하였고, 벌꿀에서 추출된 밀랍은 동정 잉태의 결실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밀랍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촛불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이 전례에 도입되면서 자신을 태워 빛을 밝히는 초의 속성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며 앞장서 인도한 불기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불기둥의 형상으로 당신 백성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며 마침내 그들에게 가난한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해방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부활의 촛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초는 부활시기 동안 부활초 촛대에 계속 세워져 부활 시기가 끝나는 성령 강림 대축일 까지 미사와 성무일도 등 전례가 거행될 때마다 켜놓게 됩니다. 이밖에도 세례식이나 장례 미사 중에도 부활 초를 켜놓음으로써 세례 성사를 받은 이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함을 상기시키고, 죽은 이들의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다시 부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칭 찬 합 시 다



김창현(바오로), 김기훈(비오) 어린이를 칭찬합니다

사순시기 나눔 주머니 회수를 위해 아가다 자매님 댁을 방문 하였는데, 그곳에는 주머니에 담긴 아이들의 맑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용돈이 생길 때 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 줘야 한다며 고사리 손으로 나눔 주머니에 정성을 모았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행복을 알고,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나눔 주머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어린 비오의 꿈은 신부님이랍니다.

추천인 : 김맹순(모니카)

칭찬하고 싶은 교우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홍보분과로 연락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요? 여러분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5월은 성모성월의 달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부단장 이인자(루시아)

만물이 푸르름을 한껏 뽐내는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의 성덕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기도로 무장하고 봉헌하는 달입니다. 성모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5월입니다. 성모님은 그리스도께 가는 지름길이며 수로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고, 평생을 하느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가신 어머니께서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뵈고자 염원하는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십니다.

않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신비스러움과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성모님의 달. 초참함 속에 잠겨있기 보다는 그 안에 묻혀있는 성모님의 고통과 순명의 삶을 되 돌아보며 자신의 생활 속에 비추어 보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이 견비될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더 없이 소중한 기억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부의 부르심에 가까이 응답하신 겸손과 순명의 어머니, 우리들의 참 어머니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장미화관을 바치옵니다.

영세 후 레지오에 입단하여 저의 발걸음은 바빠졌으며, 외딴 신자인 저는 가족의 눈치 살피느라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가정의 사랑과 평화의 끈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어 고우신 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께찮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잘 할 거라 격려해 주시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모성월을 맞아 우리는 성지순례나 피정, 교육 등을 자주 접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자기반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보다 높여가며, 믿지



부활시기를 지내며...

김태창(사도 요한)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부활절이 되면 부활성야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에는 예쁘게 포장된 부활 계란을 받아오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매년 찾아오는 부활이지만 항상 들뜨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언제나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 항상 힘이 되어 주십니다.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는 주님의 죽음과 소생함이 전부 아니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희 죄로 인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와 죄에 대한 선의 승리, 미움으로부터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랑의 승리이며, 희망의 승리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는 없어

지겠지요.

저희는 항상 부활절이 되면 부활이 가진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의무이기 때문에 미사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남을 위해 작은 봉사도 마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주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저희 항상 웃고 믿으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해주소서!





PHOTO NEWS

포토뉴스



주님 수난 성지주일



성주간이 시작되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 날은 성지까지 축복과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성지행렬,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수난복음 이 봉독된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성체성사와 이 성사를 거행하는 사제직을 제정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오전에는 주교좌성당에서 성유 축성과 사제단의 일치를 위한 성유축성미사를 봉헌하고, 모든 본당에서는 저녁 5시에 주님 만찬미사를 봉헌한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며, 십자가를 경배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각인 오후 3시에 주님 수난 예식이 거행되며, 연중 미사가 없는 날은 성 금요일 뿐이고, 금식과 금욕을 지키는 날이다.



부활성야



밤 12시에 부활성야 예식이 거행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묵상한다. 부활성야 예식 및 미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빠스카 초를 축성하고 행렬로 이어지는 빛의 예식, 구세사에 관한 말씀의 전례, 세례식(세례수 축성, 서원강신)에 이어 부활의 성야 미사가 봉헌된다.



미사해설단

단원 김은주(크레센시아)



“부활 성주간을 끝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예식을 담당하는 해설자나 그렇지 않은 단원 모두 긴장하거든요.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여러 단체와 소속 회원들과 함께.....”

해설자는 원활한 미사 진행을 위하여 주례 사제와 신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 사실 전례를 잘 아시는 정의철 신부님은 해설자가 필요 없다고 하셨으며, 가장 바람직한 미사는 사제와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 해설단에서도 해설 멘트를 극히 짧고 간략하게 하려고 하며, 신자들이 모두 숙지되었다면 서서히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사를 진행한다.

해설자의 실수는 신자들에게는 금방 잊혀지지만 본인은 몸돌 바를 모른다.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준비가 덜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는 부족하고 잘 진행해내려는 욕심만 앞설 때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다. 모든 행위가 하나하나 경건하게 이루어지는 미사에서 불필요한 멘트나 실수는 신자들의 집중을 깨어버려 분심 들게 하기 때문에, 사전 회합을 통해 의논하고 결정하여 항상 바람직한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본당 미사 해설단은 형제 다섯, 자매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신부님, 수녀님 또는 주위의 추천이나 희망하는 신자들 모두 해설 단원이 될 수 있었으며, 수녀님 면담과 약간의 오디오선 절차를 밟은 신입 단원은 선배 해설자에게 4~5회 정도 교육을 받고, 입단한지 약 2개월 후 평일 미사에 해설을 맡을 수 있다. 교육 횟수나 시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바로 해설에 임하기도 한다. 2개월 동안 매일 미사에 참여하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연습을 한다.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전례의 흐름을 알게 되고, 예식서에 나오지 않은 돌발 상황에도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혼배, 세례, 장례 등 가끔 있는 예식에도 항상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가능한 참석하여 본인에게 주어졌을 때 참고해야 한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조연자가 많으면 계획이 성공한다.’ (잠언 15,22) 우리들의 철저한 준비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따뜻한 격려의 말, 쓰디쓴 꾸지람도 모두 필요하다. 매번 긴장하고 힘들지만 달게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이근하(세바스티아노)

2003년 어느 날, 저희 구역으로 부부 독서가 예정되어 있어서 새벽미사 독서를 마치고 성당을 나서는데 수녀님께서 제게 오셔서 독서할 때 형제님 목소리가 참 좋으며 미사해설을 권하셨는데, 저의 첫마디는 “제가 미사해설이라니요.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남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며 기도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주일 미사만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의 일이 불규칙하게 끝나서 시간을 내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회사일이 바쁜 상황이기도 했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도망가고 싶었던 가 봅니다.

시간이 흘러 2004년 어느 여름날, 독서를 하게 되었는데 미사해설을 하시던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미사해설단에 들어와 봉사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하며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지금 그 때를 생각해보면 해설을 하시던 그분을 통해 저를 쓰시고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제가 순명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하느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주시고, 어느새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은총 아래 한발 한발 더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맘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조차도 순명하며 받아 들였을 때, 주님께서는 커다란 은총으로 더 좋은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저 그 섭리에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미사해설을 할 때마다 많은 긴장과 미숙함으로 서툴고 당혹함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차분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온전히 미사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가끔 저에게 분심 없이 편안하게 미사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하루가 무척 행복하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달란트가 나에게 왜 없을까? 하며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달란트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그런 소중한 부분들을 늘 일깨워 주심에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좋은 달란트를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 옳게 다 쓰고 가서 주님을 뵈게 될 그 날에, 미사 해설을 통해 당신을 향해 가는 여정의 길이 참으로 감사했었다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덤으로 주신 그 넘치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여성 1구역

삼정 현대파크 대림아파트

구역장 박애순(오안나)



4월 10일 10시 염창동 대림아파트. 실비아 자매님 덕에서 14분의 자매님들을 뵈니, 용왕산의 솔향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듯 푸른 향기가 느껴졌다. 거실에는 반모임 진행준비, 주방에선 음식 준비를 자연스럽게 분담하고 계셨다.

불만은 제로, 자랑거리는 많은 구역

화합이 아주 잘 돼 구역 일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전혀 없는 구역이라고 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모임 장소를 정하는 일, 성당행사 준비하는 일 모두 적극적으로 돕고 불평이라곤 전무한, 소공동체 활성화가 1등인 구역이라고, 솔선수범 하시는 글라라 지역장님의 영향이 크다는 귀 뿔이 있었다. 1구역 분들은 가족 모두가 성당의 봉사자와 단체장직을 훌륭히 수행하신 경험이 있거나, 현직 단체장이신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친형제이신 분들이 경쟁하듯 봉사하신다.



까지도 털어놓고 의논드리고 싶은 친 자매 같은 분들이라고,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던 가족애를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살림도 잘 하시는 자매님들

취재팀이 노크를 했을 때, 집안은 고소한 냄새와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다. 자매님들은 소매를 걷고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다. 반모임이 있는 날이면 언제나 자매님들끼리 손수 만든 음식으로 푸짐한 상을 차려 함께 식사를 하다보면 가족처럼 정이 두터워 진다고. 그래서 이 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한답니다. 특히 이사 가신 자매님이 쭈어 오신 호박죽은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인기메뉴였다.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하고 싶은 형님들

타 지역에서 이사 오셨다는 자매님은 좋은 분 한분만이라도 만나길 기도했는데, 모두가 좋은 분들이어서 신앙적 어려움은 물론, 개인적 고민



내 삶의 이모작을 심어본 '초록피정'

구자영(헬레나)

진달래가 꽃망울을 맺기 시작하던 3월 중순. 봄날 새순같이 파란 이름의 하늘땅물벗 '초록 피정'이 열렸다. 올해는 본당과 지척에 있는 등촌동 성당에서 서서울지역 우리농 활동가들이 함께 모였다. 본당의 시순 피정과 겹쳐 전원 참석이 불투명하던 본당 활동가들도 모처럼 의기투합해 8명이나 참석했다.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찰을 만들어주세요.” 중년을 훌쩍 넘겨버린 지금, 크레파스로 작은 명찰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았다. 꿈이 멈춘 듯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나 다들 한동안 멍해 보였다. 그러저럭 이름 석 자를 그려 넣으며 명찰을 완성하자, 이번에는 '내 삶의 이모작'을 생각해보라고 한다. 오늘의 피정 주제다.

'내 삶의 이모작' 이미 시작돼버린 우리 생의 이모작은 과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지, 또 충분한 양분을 쏟아 부었는지 뒤돌

아보게 됐다. 우리농 활동가를 일명 '생태 사도직'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 생태 사도직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활동했는지 잠시 반성해 보았다. 앞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의 이모작'에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가꾸어 나가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해 보았다. '생각하기'와 '길 찾기'에서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으며, <농민의 편지>를 읽을 때는 도시와 농촌이 한 마음이 돼야 추수하는 날 많은 알곡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던 초록 피정. 앞만 보며 달려왔던 나의 모습에 십표를 찍으며 여유를 가져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과건미사를 끝으로 돌아오던 길. 거울을 건디고, 굳은 껍질을 밀고 올라오는 새순처럼 '내 마음 밭'에도 기쁨과 결심의 새순이 싹싹 돌아나고 있었다.



붉은 가슴 올새

셀마 라게를리프 지음/ 위즈덤북



‘붉은 가슴 올새’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은이 셀마 라게를리프는 스웨덴 사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죠?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잿빛의 작은 새도 지어 내시어 ‘붉은가슴올새’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잿빛의 붉은 가슴 올새는 자신의 가슴이 붉지 않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왜 붉은 가슴 올새라고 불러주셨는지 용기를 내어 물었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네 마음가짐 하나로 너도 붉은 털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붉은 가슴 올새의 조상들은 붉은 가슴을 얻기 위해 가슴털이 빨갛게 될 때까지 사랑을 했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노력도 불려 보았고, 용감하게 싸우며 용기를 키워도 봤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잿빛 새가 짙레 덩굴 속에 등지를 틀고 새끼들을 돌보고 있던 어느 날, 망치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무자비한 외침들이 들려 왔습니다. 잿빛의 붉은 가슴 올새는 사람들이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까지 쓰고 십자가에 못박혀 있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분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잿빛의 어미 새는 용기를 내어 날아올랐고 있는 힘을 다해 그분의 머리에 박힌 가시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 순간 피 한 방울이

어미 새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 분은 “네 착한 마음씨로 너의 동족이 세상 첫 날부터 구해 오던 것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너부터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깨닫지 못할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그분의 피가 잿빛 새의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새끼들도 자라면서 가슴에 붉은 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결하고 짧은 이야기를 통해 가슴속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바라면서 교우 여러분의 느낌을 기다립니다.



호롱불



부활 계란 축복



4월 7일(토) 부활절 하루 앞서 본당에서는 부활 계란을 축복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반

원들이 한 집에 모여 부활 계란을 꾸미면서 죽음을 딛고 일어난 부활의 기쁨을 먼저 나누는 친교의 자리가 되었으며, 각양각색의 모습을 뽐내며 한가득 바구니에 넘치는 사랑을 담았다. 이날 부활절 미사 후 나눔 부활 계란 2000개와, 반원들과 이웃이 서로 나눔을 가질 사랑스런 부활 계란이 풍성하게 테이블을 장식했다.

서서울지역 남성구역 봉사자 피정

3월 11일 명동 성당에서 서서울지역 남성구역 봉사자 하루 피정이 있었다. 본당에서 27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동훈 신부님의 기도와 말씀 나누기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자연스럽

고 편만한 기도와 생활 말씀을 나누려는 강론과 차동엽 신부님의 선교에 역점을 둔 강론을 들으며, 전 신지는 물론 구역 봉사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새삼 자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참고로 <http://www.samok.or.kr> 에 접속하셔서 메

뉴에 있는 구역장, 반장들의 자리를 클릭하시고 39번 주님의 기도에 대한 단상, 40번 어는 17세기 수녀의 기도에 대한 글을 읽어봤으면 한다.

나눔 사랑 주머니

지난 시순절 동안 절제와 희생으로 모아 주신 나눔 사랑 주머니'는 도합 11,872,320원이었으며, 사목회의의 심의를 거쳐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된다고 한다. 2007년도 1월~3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10,927,000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안정 1,000,000원, 학자금 보조 800,000원, 생활안정 1,000,000원, 설날 불우이웃돕기 1,087,000원, 생계보조(88세대) 7,040,000원이다. 시순절 동안 극기와 희생으로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지순례

4월 15일 1지역(1,23구역) 형제자매 40명이 봄향기 가득한 삼성산 성지를 향했다. 미사를 봉헌

하고 십자가의 길을 마친 후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행도 함께하여 더욱 가까워진 형제애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며, 자연 속에서 한마음이 된 형제자매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 결과 (4/1 - 4/22)

일자	내 용	참석인원
4.4	한식 합동 위령미사	
4.5-7	성주간(구역별 밤샘 성체조배, 주님 만찬 미사, 십자가의 길, 주님 수난 전례, 부활 성야 예식 및 미사)	
4.8	예수 부활 대축일 나눔 사랑 주머니(₩ 11,872,320)	
4.20	성령세미나(주제 : 성령세미나 소개, 강사 : 손광배(도미니꼬) 신부님	97
4.21	중고등부 여학생을 위한 작은 모임 (내용 : 성녀 소화테레사와 함께 하는 여정)	1
4.22	자비하신 모후 Cu. 성지순례 (장소 : 절두산)	106

행사 계획 (5월)

일자	내 용	일자	내 용
4.27-6.8	성령세미나(매주 금요일 19:00-22:00)	5.18	자연보호 및 선교활동
4.29	성소주일(주일학교 어린이들 신학교 방문)	5.20	본당의 날 행사
5.9	천상은총의 어머니 Cu. 야외행사(성지순례) 창조주의 어머니 Cu.-Pr. 별 야외행사	5.26	성모님의 밤

환영합니다.(전입자 명단)

지역/구역/반	이 름	지역/구역/반	이 름	지역/구역/반	이 름
01-03-01	박병안(요한)	03-09-05	김순완(요한)	05-14-03	성기수(스테파노)
01-03-05	송철규(임마누엘)	03-10-02	장기택(시몬)	05-15-02	박혜숙(글라리아)
02-05-01	김아라(세레나)	03-10-02	윤해균(알베르토)	05-16-01	이옥희(가타리나)
02-06-03	오미숙(요안나)	03-10-02	이희배(가브리엘)	06-20-04	김명순(아나다시아)
02-07-02	오대성(요셉)	04-11-02	안준식(베드로)	07-21-03	김태규(요한)
03-08-04	이부기(클레멘스)	04-11-05	서인숙(베로니카)	07-23-05	김보라(레지나)
03-09-02	우학순(테레사)	04-12-01	반혜진(테레사)	08-28-04	김은경(로사)
03-09-04	신인균(시몬)	05-14-01	안정은(벨라렛다)	08-28-04	이행옥(이사벨라)

선종자 명단

지역/구역/반	선종자	선종일자
03 - 09 - 03	노영진(시몬)	2007년 3월 28일
07 - 22 - 05	윤승희(요셉피나)	2007년 4월 13일

헌배알림



장상팔(베드로), 김명진(유스티나)의 장남 하영(스테파노)
구원회, 박현숙(젬마)의 장녀 상희(루피나)
일시 : 2007.5. 5.(토) 14시 / 장소 : 등촌1동 성당

정하성(마오로), 정소윤(아가다)의 막내 상민(마르첼로)
이숙이
의 장녀 경희
일시 : 2007.5.12.(토) 13시 / 장소 : 등촌1동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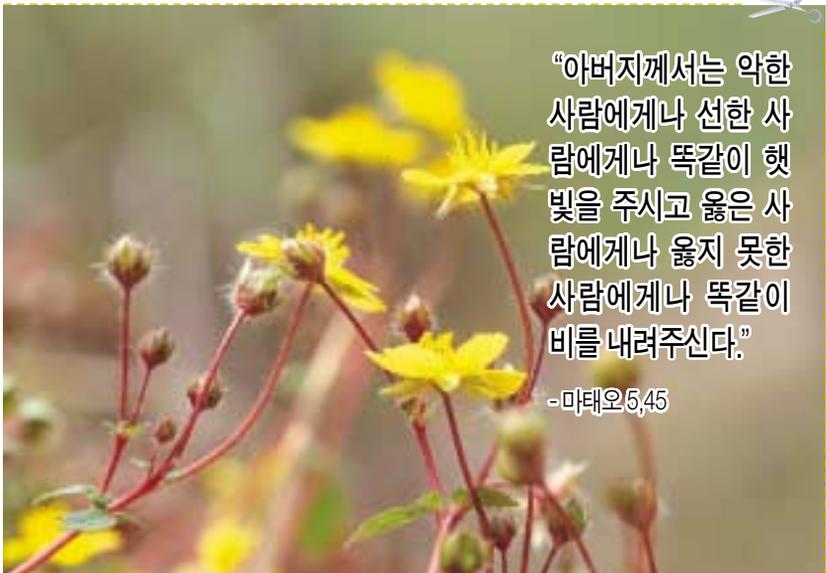
좋은 글

스치듯 만난 좋은 글귀가 때로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교우들의 수첩이나 후미진 화장실 한 칸을 예쁘게 꾸며 주세요.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
도 가시 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
겨둘 수 있다.

- <햄릿> w. 셰익스피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
람에게나 똑같이 햇
빛을 주시고 옳은 사
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 마태오 5, 45

본당의 날

본당의 주보성인인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참수형을 받아 순교한 5월 24일(1839년)을 본당의 날로 정하여 성인의 뜻을 기리고, 이를 기념함.

본당설립 2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

본당의 날 기념 한마음 축제에 전신자가 참여하여 소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신자들의 가정이 성화되어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일 시 : 2007년 5월 20일 9시~ 17시
장 소 : 가양동 소재 염강 초등학교 운동장
대 상 : 본당의 전신자 (예비신자 포함)

제1부 : 야외 미사
제2부 : 한마음 축제
제3부 : 시상 및 폐회식